



■ 수학책임교육을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수학의 발견》 도내 학교 2년 연속 보급 환영보도(2020. 3. 11.)

강원도교육청이 《수학의 발견》을 2년 연속 보급하여 수학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 강원도교육청은 수학책임교육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내 60개 중학교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발간한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을 1만 2천여 권 보급함.
- ▲ 《수학의 발견》은 지난해에는 강원도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약 1만 명에게 보급 되었으며 교실 수업을 살리는 도구로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음.
- ▲ 강원도교육청은 대안 교과서 보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총 7회에 걸쳐 대안교과서 활용 연수를 제공하였으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연수 강의를 진행하였음.
- ▲ 수학책임교육 지원과 내실 있는 수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원도교육청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작년 8월에 맺은 MOU 이후 강원도교육청은 책 보급과 교사 연수 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교실 수업이 살아나는 수학교육 혁신이 더 현실화될 것이며, 전국의 타 시도에도 이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함.

강원도교육청은 수학책임교육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학교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을 도내 중학교 60곳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1만 2천여 권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수학의 발견》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펴낸 대한민국 최초의 대안 교과서로 작년 12월에 3학년 책이 출간되면서 《수학의 발견》 중학교 1, 2, 3학년 시리즈가 완간되었습니다. 대안 교과서 《수학의 발견》은 현직교사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만든 책으로, 앞서 발간된 중1·중2편을 통해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과서라는 현장의 호평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 강원도교육청은 수학책임교육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60곳의 중학교에 1만 2천여 권의 《수학의 발견》을 보급함.

사교육걱정은 대안 교과서 제작 과정 중 2017년에 강원도교육연구원과 전문기관 협력 연구인 ‘강원도 중학생의 수학기초학력 향상 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대안 교과서의 취지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안 교과서로 수업한 강원도 중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책으로 공부했더니 수학 원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질문에는 74.1%의 학생들이 긍정의 답을 주었고, “풀이 방식을 암기해서 풀기보다는 더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질문에는 72.7%의 학생이 긍정의 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수학의 발견》을 도내 희망하는 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1, 2학년 학생들 약 1만 명에게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학 수업이 가능해졌고, 학생 스스로 수학의 개념을 발견하며 배움의 주도권을 되찾는 변화가 있었으며 대안교과서로 수업한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교실 수업 개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강원영동 뉴스리포트는 이런 내용을 작년 4월에 《수학의 발견》을 사용하는 학교 현장의 모습과 함께 담아 방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진1] MBC 강원영동 뉴스리포트(2019.04.29.) 방송화면 갈무리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해 보급한 《수학의 발견》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답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다양한 풀이 방법이 나온다고 대안 교과서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뉴스 인터뷰에서 강원도교육청 김정원 장학사는 “이 교과서는 여러 가지 발문과 과제를 통해서 수학 개념을 아이들로부터 이끌어 내고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대안 교과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내 60곳의 중학교에 약 1만 2천권의 《수학의 발견》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대안 교과서 보급 정책은 대안 교과서를 통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쇄신하고 교실 수업에서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수학 교과서와 수업 방법, 평가를 일체화하려는 철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아가 강원도교육청은 대안 교과서의 보급 취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별 교사의 노력으로 수업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총 7회에 걸쳐 강원도 수학 교사들에게 대안교과서 활용 연수를 제공하였으며 사교육걱정은 연수 강의를 진행하며 교실 수업의 변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진 2] 2019년 진행한 대안 교과서 활용을 위한 강원도 교사 연수

연수를 통해서 대안 교과서의 철학과 학생들이 스스로 개념을 발견하는 기회를 주는 수업이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하는 수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실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수의 시간을 통해서 강원도 수학 선생님들의 열정과 수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수포자 문제 해결 위한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강원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대안 교과서 보급과 교사 연수 지원 정책은 수학 교실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 변화의 흐름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함.

강원도교육청은 작년 8월에 수학책임교육 지원과 내실 있는 수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학교과서와 수업과 평가를 일체화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배움이 있는 수학교육을 실현하고자 사교육걱정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강원도교육청은 대안 교과서 보급과 교사 연수 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안교과서 보급은 단지 수학 수업시간에 새로운 대안 교과서 한권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다

는 의미를 넘어서 교실과 교육과정 혁신, 수업과 평가의 혁신 및 이를 위한 교사역량 배가 지원체제까지 쇄신하겠다는 총체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수학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이나 교실 바깥의 교육과정 이외의 접근에서 자족할 것이 아니라 교실 수학 수업 자체를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안 수학교과서로 시작된 강원도의 수학 교육 혁신은 일관된 철학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강원도교육청을 통해 변화를 더 현실화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강원도내 학교의 교실과 교육과정 혁신, 수업과 평가의 혁신 및 이를 위한 교사역량 강화와 학부모 교육 지원체제까지 총체적 접근 방식을 취하여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시도교육청들도 기존의 검정 교과서가 증가하고 있는 수포자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과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특히 ‘수학 체험전, 수학나눔행사, 수학클리닉’ 등 일시적이면서 교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이외의 접근에서 자족할 것이 아니라 교실 수학 수업 자체를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의미 있는 정책과 지원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전국의 시도교육청에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20. 3.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연구원 고여진(02-797-4044/내선번호 5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